

전주 에코시티 이전 고교 찾는다

도교육청, 전주지역 평준화 국·공립 일반고 대상

에코시티로 이전·재배치 희망학교 공개모집

전주 에코시티에 고등학교가 들어설 전망이다.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전주지역 국·공립 학교를 대상으로 에코시티로 이전할 고등학교 공개 모집에 나선 것. 이는 교육부 중부위 면제 대상으로 도교육청이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2021년 전복사대 부고 이전 추진 무산 2021년 24학급 규모의 학교 신설 추진 미승인 등으로 2022년 국·공립 고등학교 대상 이전·재배치 연구용역을 추진해 왔다.

도교육청은 30일 브리핑룸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자회견을 갖고 전주 에코시티는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학령 인구가 이동함에 따라 고등학교 설립이 필요하나, 전주 지역은 평준화 일반고가 단일학군으로 운영되고 있어 현실적으로 새로운 학교 신설에 한계가 있었음을 밝혔다.
이에 기존 학교를 전주 에코시티로 이전·재배치해 학생 배치 여건을 개선하는 방안을 택했다.
특히 대상학교 선정 방법도 그동안의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의 자발적 신청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개모집' 방식

으로 전환했다.
이는 학교 이전에 가장 큰 난관인 이해관계자와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공모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된다면 학교 이전 추진의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이전·재배치 학교에는 매년 1억6,000만원씩 10년 간 총 16억원의 교육활동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공모 대상 학교는 2015년 신설된 양현고를 제외한 전주 지역 국·공립 평준화 일반고 6곳이며, 단성학교의 경우 학교 이전과 병행 남녀공학으로 전환해야 한다. 국·공립 일반고 대상 우선 공모 후 희망 학교가 없을 시에는 사립고를 대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에코시티 이전을 희망하는 학교는 학생·학부모·교직원 대표 및

학교운영위원회 동창회 등 학교관계자와의 사전 협의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11월 1~24일 공모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이후 별도의 선정위원회에서 대상 학교를 선정, 12월 중 학생·학부모 대상 설명회와 찬반투표를 진행, 찬반 투표 결과 투표 응답자의 과반수 찬성 시 이전·재배치 학교로 최종 확정된다.
서거석 교육감은 "현재 전주 에코시티는 고등학교가 한 곳도 없어 인근 고등학교에 배정받지 못한 학생들은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균형 잡힌 학생 배치와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해 공모 절차와 이전대상학교 선정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은성 기자

“지역주도 청년일자리사업 큰 도움”

부안 정착 이선미 도예가, 전국기능경기대회 동메달

‘제58회 전국기능경기대회’ 도자기 부문에서 전주전대대학 산학협력단(단장 조덕현)이 수행하는 부안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이선미 도예가가 동메달을 획득했다고 전했다.
이 대회는 지역 간 대화를 통해 숙련기술 수준을 높이고, 숙련기술을 우대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1966년 서울 대회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도자기 목공 타일 등 50개 직종에 17개 시·도 대표선수 1,691명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쳤다.
동메달을 수상한 이선미씨는 “부안군의 매력에 빠져 경기도 김포시에서 귀촌해 모든 것이 막막했지만 창업공과금 및 공과금 지원, 맞춤형 멘토링 지원 등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참여를 통해 부안군에 정착해 꿈을 키워나가고 있다”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을 통해 많은 청년들이 새로운 출발을 위한 기회와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다고 앞으로도 계속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상황에



맞게 직접 설계·기획하고 행정안정부가 운영을 지원해 청년이 지역의 일원으로 살아가며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지역별 상황에 맞게 맞춤형 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주전대대학 산학협력단 조덕현 단장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노력해 최고의 성적을 거둔 이선미씨에게 축하를 보낸다”며 “앞으로도 부안군 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을 널리 홍보해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주대 김광혁 교수

학교사회복지학회 회장

전주대학교 김광혁(사회복지학과) 교수가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 제22대 회장으로 선출됐다고 전했다.
김 교수는 지난 10월 21일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에서 제22대 회장으로 선출 임기는 내년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다.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는 1997년에 창립된 학교사회복지 분야 유일의 전국 규모 학술지로, 총 1,300여명의 전문 연구자들로 구성된 학술단체다.
한편 김광혁 교수는 교육부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정책 개발 및 연구에 참여해 왔으며, 지역에서도 학교사회복지 정책 개발 및 평가, 학교사회(교육)복지사 양성에 이바지해 왔다.
또한 전주대 사회복지학과 졸업생들의 학교사회복지 분야 진출을 위해 노력해 왔다.
/정은성 기자



마찰전기 매커니즘 이론·실험으로 규명

전북대 정창규 교수·아주대 조성범 교수

전북대학교 정창규 교수(신소재공학부 전자재료공학 전공) 연구팀이 마찰전기 대전(摩擦電) 순서가 시시각각 다르게 변화하는 매커니즘을 이론과 실험을 통해 규명했다고 30일 밝혔다.
30일 연구팀에 따르면 마찰전기 기반 전자소자를 제작해 전자와 이온의 흐름에 대한 측정을 하고 아주대학교 신소재공학과 조성범 교수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양자역학



정창규 교수



조성범 교수

기반의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그 이유를 규명했다.
연구팀은 대부분의 물질들은 전자들이 한 물질로 옮겨가다가 돌아오지 못하면서 마찰전기가 발생하게 되는 것을 발견, 이런 현상은 마찰전기 대전열의 경향성과 잘 맞는다라는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대전열에서 이상 현상을 보이는 물질의 경우는 두 물체가 접촉할 때 전자뿐 아니라 물질에 붙은

이온도 함께 이동하면서 전자가 돌아오거나 경로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고 이에 따라 같은 전하 이론이 변하는 것을 밝혀냈다. 이 결과는 물리 분야에서 전통적인 최고 수준의 학술지인 피지컬 리뷰 레터스(Physical Review Letters)에 게재됐다.
정창규 교수는 “마찰전기는 매우 흔한 일상의 현상이지만, 그 물리적인 매커니즘은 여전히 미묘한 점이 많다”며 “공동연구를 통해 물리적 이유를 밝혀내고, 더불어 물리학적 최고 저널에 게재할 수 있어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해당 연구는 아주대학교 외에도 한국세라믹기술원, 미국 위스콘신 대학교,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등과의 협업을 진행했다.
/정은성 기자

국제 바칼로레아 교육 이해 확산 주력

IB 교육

도교육청, 'IB 교육 철학과 프로그램 이해 주제' 특강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국제 바칼로레아(이하 IB) 교육에 대한 학교 현장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총력을 펼치고 있다.
IB 프로그램은 스위스 비영리 교육재단 국제 바칼로레아 기구(IBO)가 1988년 개발해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인정받으며 160여 개국 5,700여개의 인증 학교를 운영하는 국제 교육 체계이자, 교육과정이다.
이를 위해 전북교육청은 30일 창조나래(별관) 3층 시청각실에서 교원, 교육전문직원, 학부모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IB 교육 철학과 프로그램의 이해'를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전북미래학교의 다양한 교육과정 유형으로 도입되는 IB 프로그램에 대한 교원 및 학부모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함이다.
이날 강사로는 IBO 공식 워크숍 리더이자 학교 인증단이며 컨설턴트인 개념기반 교육연구소 신은정 소장이 함께했다. 신 소장은 IB 교육 철학과 프로그램의 이해'를 주제로 IB 교육의



30일 전북도교육청 창조나래(별관) 3층 시청각실에서 교원, 교육전문직원, 학부모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IB 교육 철학과 프로그램의 이해'를 주제로 한 특강이 열렸다.

역사와 철학 IB 교육의 원칙을 통해 우리나라 교육에 주는 시사점, IB 교육과 글로벌 사회가 요구하는 가치와 역량의 연계를 강조했다.
이어 IB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정책 안내도 했다. 교육은 전북교육청의 IB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전북미래학교로서의 IB 준비학교 운영, IB 프로그램에 대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정은성 기자

서거석 교육감은 “이번 특강은 IB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통해 우리 전북 교육이 나아가고자 하는 학생중심 미래교육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자 한다”면서 “전북교육 가족과 함께 더불어 미래를 여는 전북교육의 철학과 비전을 공유하고, IB 프로그램에 대한 공감대를 통해 전북 미래교육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우석대 박상혁 교수, 국제

융복합연구원 초대 학회장에

우석대학교 박상혁(군사학과) 교수가 (사)국제융·복합연구원 초대 학회장에 선출됐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사)국제융·복합연구원은 지난 28일 화회 발기인과 회원 30여 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회관에서 창립총회 및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전선미 전북도청 문화체육관광공장의 기념사로 시작된 이날 행사는 학회장 및 임원 선출과 정관(안) 승인 등이 이뤄졌다.
이어 조상근 카이스트 교수가 ‘융복합 실제’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다양한 주제와 현안에 대해 토론이 이어졌다.
초대 학회장에 선출된 박상혁 교수는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사회현상의 문제들은 자연과학과 공학·의학·인문학·사회과학 등 다양한 학문분야와 연계되고 급속하게 다원화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학문적 연구와 해결방안 등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국제융·복합연구원은 오는 12월 학술지 1호를 발간할 계획이다.
/정은성 기자



메이커 페어 글로벌 캠프 “만족도 높다”

도교육청, 결과 발표회 개최

2023년 메이커 페어 글로벌 캠프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지난 28일 오후 2시 창조나래 시청각실에서 2023년 메이커 페어 글로벌 캠프 결과 발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회에는 학생, 학부모, 인솔교사 등 50여 명이 참석해 메이커페어 글로벌 캠프 결과를 공유하고, 다양한

피드백 활동 시간을 가졌다.
이에 따르면 2023년 메이커 페어 글로벌 캠프는 지난 10월 6~12일 5박 7일 일정으로 미국 뉴욕과 보스턴을 방문해 CONEY ISLAND Maker Faire 2023 참가, 허버드, MIT, 뉴욕대학 탐방 및 재학생과의 만남, 보스턴 과학 박물관 견학, MIT 첨단 과학 산학 연구 센터 탐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특히 캠프 이후 실시한 설문 조사에

서 프로그램 운영과 학습·진로·문화 이해에 대해 만족도는 100%, 강의에 대한 만족도는 98%로 매우 높았다. 발표회에 참석한 한 학생은 “이번 캠프에 참여해 실패를 포기하지 않는 도전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기는 메이커 정신을 본받아 학교생활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면서 “평상시 메이커 분야에 관심이 많았지만 진로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막연했는데, 캠프를 통해 고등학교, 대학교 생활에 대한 구체적 계획과 함께 진로에 대한 로드맵을 완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은성 기자

석유·자원개발업계 이끌 우수 연구자

전북대 박세은·조현욱 대학원생 포스코인터내셔널 산학장학생에

전북대학교 환경에너지융합학과 박세은·조현욱 대학원생(지도교수 오주원)이 2023년도 포스코인터내셔널 산학장학생에 선발됐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박세은은 박사과정생은 캐나다 캘거리대학 연구팀과 미국 로렌스버클리국립연구소(LBNL), 메사추세츠 공과대학(MIT)에서 파견연구를 수행하며 우수인재로서의 역량을 갖췄다.
현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에너지신산업글로벌-해외연계 사업의 지원을 받아 노르웨이 과학기술대학교(NTNU)와 지반연구소(NGI)에서 ‘노르웨이 슬라이프너 CCS 저장소의 역 시간 구조보정 및 원진파형역산 기반 4차원 탄성과 이방성 모니터링 기술개발’을 주제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박 박사과정생은 한국자원공학회회장과 한국지구물리·물리탐사학회의 학생



박세은 대학원생 조현욱 대학원생

우수논문발표상을 수상한 바 있다.
또 조현욱 석사과정생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에너지신산업글로벌-해외연계 사업의 지원으로 호주 커틴대학교(CGU)에서 ‘분포형 광섬유 시스템을 활용한 호주 오토웨이 CCS 저장소 지하구조 영상화 및 이산화탄소 거동 모니터링 시추공 탄성과 탐사자료 모니터링 기술개발’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조 석사과정생은 한국자원공학회회장을 수상한 바 있으며 육상 지중 저장소에 주입된 이산화탄소의 거동을 모니터링하는 CCS 기술 또한 연구 중이다.
/정은성 기자

거점국립대 국가전략기술, 기업과 만나다

전북대-강원대-경상국립대, 내달 2일 ‘테크 밋업 데이’ 개최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 손정민)은 11월 2일 오후 1시 30분 COEX Studio 159에서 전북 강원-경남권 국립대대학 국가전략기술 Tech Meetup Day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전북대 강원대 경상국립대의 주요 연구개발 성과 중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우수한 사업화 유망기술을 소개하는 자리로, 기술이전 상담을 비롯해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소개, 지식재산권·투자 상담 등으로 진행된다.
특히, 첨단바이오, 이차전지, 반도체·디스플레이 첨단 모빌리티, 우주항공·해양 등 3개 대학이 보유한 5개 분야의 40여개 전략기술이 전시된다.
또한 기술보증기금, (재)서울테크노

파크, (재)전북테크노파크, (재)경남테크노파크, 세마인베스트먼트(유)가 함께 참여해 투자(금융), R&D 사업 등에 대한 상담도 이뤄진다.
한편 참가 및 상담 신청은 11월 1일까지 온라인(<http://www.ip1st.biz/2023Techmeetup>)을 통해 가능하다.
손정민 단장은 “이번 행사는 대학의 우수 기술과 기업의 만남 뿐만 아니라 기술보증기금, 테크노파크, 투자사 등 기술사업화 분야의 전반적인 지원을 통한 기술사업화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지속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대학의 우수한 기술을 발굴하고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주대, 내달 1~3일 4개 대학 연합 성과 전시회

전주대학교 LINC 3.0 사업단은 11월 1~3일 사흘 간 학생회관에서 성과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성과 전시회 기간 중인 11월 2일 오후 2시에는 △2023 LINC 3.0 창업 동아리 최종 결과 발표회 △2023년도 II 캠퍼스디자인 경진대회가 동시 진행된다.
/정은성 기자

사업 기간 내에 제작한 시제품 완성본과 여러 사진 및 영상 공모 수상작들도 함께 전시된다. 이번 전시회는 군장대학교, 전주전대대학, 전주비전대학교와의 공유 협업을 통한 4개 대학 연합 캠퍼스디자인 경진대회는 뜻깊은 협력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은성 기자